

정론

우리

는

구인가

이 세상 그 어떤 절해고도에서도 마음든하게 해주는 영광스러운 부름이 우리에게 있다.

누구든 물어본다면, 너는 누구인가고 물어볼 때면 가슴펴고 소리높이 자랑할 긍지높은 부름이 우리에게 있는것이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면 선조선사람으로 터여난 궁지로 가슴 설레이고 길을 걸어도 절로 걸음이 쪽씩 해지며 눈보라치는 얼음장 우에서도 마음속에는 위훈의 날개가 세차게 펴인다.

대양과 대륙을 넘어 그 어데서 견 『김일성동지!』 그 이름을 부르면 언어도 풍속도 다른 사람들이 엄지손가락을 높이 올릴 때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들의 삶과 행복에 대하여 얼마나 궁지높이 새겨보게 되었던가.

하지만 공민들이여,

우리 때로 자기의 본명을 잊은적은 없었던가.

여러대가 지난 뒤의 자손을 일컬어 후손이라고 하거늘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저 멀리 흘러갔다고 하여 수령님의 아들딸들이 자기의 근본을 망각한적은 혹시 없었던가.

우리는 그것을 망각할수 없었다.

어버이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모신 초상화장을 가슴에 모시고 고난과 시련의 언덕을 넘어오면서 그렇듯 웨치웠던 말 『김일성동지의 후손』이라는 이 말의 전자를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게 깨달았던가.

우리 언제나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아온 이 부름은 온 세상에 궁지높이 터쳐주신 위대한 스승의 고결한 세계에 눈시울 젖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자연개조사업에서 이룩한 또 하나의 기적—완공된 대계도간식지를 찾으신 그날은 안개도 추억의 갈피되어 그이의 사색을 따라선 역사의 날이었다.

열마나 감회도 깊으셨으라.

파도소리만 들리면 바다가 땅으로 되어 마을과 길들이, 학교와 유치원이 생기고 자동차소리, 블스소리가 들리게 들리는 간식지마을, 오리공장, 양어장도 있고 양어의 CNC화까지 차량하는 내 나라의 새 간식지였다.

대계도간식지체방을 따라 삼파와 섬들이 하나의 유기체로 되고 바다로 하여 서로 먼곳이었던 군과 군이 해상도로와 함께 이웃마을처럼 가까워지게 된 천지개벽이었다.

수수만년 밀풀과 물풀을 물었으던 방대한 적의 땅이 꼬리를 떠나 거대한 육토로 전환되는 위대한 기적이었다.

차를 타고 달리면서 보아야 그 길이를 알수 있고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아야 그 폭을 가늠할수 있으며 인공지구위성으로 보아야 그 거대 함을 가늠할수 있는 대자연개조의 업적임이었다.

수십미터 높이를 뛰어넘는 바다길 위 승리의 희한한 절경을 펼쳐놓은 건설자들이야말로 우리는 그 무엇으로써도 달리 될수 없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전사, 제자들임을 조국 정사에 떳떳이 아로새긴 실천가들이인 것이다.

대계도간식지건설승리의 포성을 자랑높이 울린 용감한 건설자들을 향하여 달폐시듯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훌륭하오. 김일성동지의 후손들답게 일했소!

후손만대 끝까지 메아리쳐 잘 력사적 결론이였다.

이 나라 수천만의 아들딸들을 수령님의 명전앞에 떳떳이 세워주시는 력사적 충화였다.

조국청사에 진하게 아로새길 불멸의 위훈을 세운 유명무명의 건설자들에 대한 최대의 경의를 담아 내리신 위대한 결론의 의미는 크다.

선군시대 천지개벽의 역사에 또 하나의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린 대계도간식지는

김일성민족으로 터여난 우리 공민들 모두를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세워주고 있다.

우리는 누구인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대원수님의 품에서 시작된 참된 민족의 역사로 수령님의 후손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키고 빛내여나가야 하는가를 정신 번쩍 들통

깨우쳐주는 대계도의 파도가 가슴속에 물어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영웅적조선인민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역사와 민족앞에 지닌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오늘의 이성스러운 투쟁에 참가하여 영웅적위훈을 렬쳐야 합니다.』

역사의 기적은 추억만을 새기는것이 아니다.

크나큰 포부와 리상을 실현한 영웅들의 위훈은 그 시대에 함께 사는 동시대인들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본분을 상기시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자연개조에서 선군조선의 영예와 존엄을 펼친 대계도간식지건설자들에게 내리신 값높은 평가는 강성대 국건설시대 인간들의 마음속에 창나운 후손에 대한 표상을 새기여준다.

김일성동지의 후손.

생각만 해보아도 눈시울 젖어드는 말이다.

백두밀림의 눈보라를 헤치시며 조국방의 총총초 높이 울리시던 전설적영웅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고 조국개선광장, 전승광장에서 헛美貌는 미소를 보내시면서 청년장군의 모습이 떠오르는 부름.

김일성동지의 후손.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소! 라는 격노한 월의 선언, 미국놈들이 우리를 제재해도 좋고 전쟁 안해도 좋다. 두고보라, 우리가 이제 얼마나 잘 사는가라고 엄숙히 선언하시면서 우렁우렁한 음성이 귀전에 울리는 부름—김일성동지의 후손.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고 조국개선광장, 전승광장에서 헛美貌는 미소를 보내시면서 청년장군의 모습이 떠오르는 부름.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노인 위대한 수령님과 하나의 피줄로 이어지는 후손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숭엄한것인가.

수령님의 위대성이나 후손의 위대성이다.

이 세계에 함께 존재하는 수백개의 나라들을 돌아볼 때 위대한 수령의 존함으로 손꼽히는 후손의 이름이 또 어제 있는가.

신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느님을 불러 그대의 아들딸이라고 말하는 민족도 있으며 역사의 이름을 남긴 침략자, 정복자의 이름을 빌어 후손의 명예를 말해 보려는 민족도 있다.

대국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 기초에는 그 무엇으로써도 달리 될수 없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전사, 제자들임을 조국 정사에 떳떳이 아로새긴 실천가들이인 것이다.

대계도간식지건설승리의 포성을 자랑높이 울린 용감한 건설자들을 향하여 달폐시듯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훌륭하오. 김일성동지의 후손들답게 일했소!

그러나 이런 정의로운 후손, 애국적인 후손, 용감한 후손이란 갈망으로 되는것이 아니다.

이 나라 수천만의 아들딸들을 수령님의 명전앞에 떳떳이 세워주시는 력사적 충화였다.

조국청사에 진하게 아로새길 불멸의 위훈을 세운 유명무명의 건설자들에 대한 최대의 경의를 담아 내리신 위대한 결론의 의미는 크다.

선군시대 천지개벽의 역사에 또 하나의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린 대계도간식지는

20세기 이후 인류의 전망을 말해보겠다고 무수한 국경들을 넘어본 한 역사가가 펴낸 내나라 나는 후손들의 세상, 세상, 고카를라낸다는 후손들의 세상, 뜻과 정신이 없으며 자기만을 아는 후손들의 세상에 환멸을 느끼고 돌아섰다는 이야기가 우연치 않다.

수심역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수령의 이름으로 당당히 말할수 있는 후손은 오직 김일성민족 하나뿐임을 우리 온 세상에 궁지높이, 소리높이 떳떳이 말할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후손에게는 궁지높이 이어갈 사상과 정신이 있고 자랑높이 물려갈 역사가 통통이 있다. 자기의 운명을 개척할 위대한 사상이 있고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할 위대한 리상과 포부가 있으며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적부부가 있어 우리는 위대한 후손이다. 우리에게는 자자손손 물려갈 귀중한 사회주의제도가 있고 위대한 당파 백전백승의 군대가 있다. 우리에게는 수령님의 한생이 깃든 혁명의 붉은기와 동지애의 노래가 있으며 혼연 일체의 강대한 힘이 있다.

령도가 크다는 자랑, 인구가 많다는 자랑, 자원이 많다는 자랑에 비할수 있는가. 이렇듯 훌륭하고 고귀한 혁명유산, 이렇듯 강대한 혁명재부를 가진 후손들이 그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것으로 하여 우리의 존엄은 높다. 바로 그것으로 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자랑높은 후손인 것이다.

후손은 절절로 이어지지 않는다.

목숨이 이어져 후손이 아닌것이다.

사상이 계승되고 역사와 전통이 계승되어야 하며 정신력이 계승될 때 수령의 후손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다.

수령이 넘겨준 일을 지켜서 혁명의 후손이 살고 이것을 더하여 혁명의 후손이 존재 한다.

우리 장군님은 위대한 후손의 뿌리가 되시였다.

그이는 김일성동지 후손들을 키우는 대체 한 밀뿌리가 되시였다.

수령이 넘겨준 일은 끝이 아니고 온 세상에서 제일기질이다.

수령님의 유훈을 떠지 않고 곧바로 한 걸을 가도록 떠밀어주시고 수령님의 유산을 털풀만큼도 훌리지 않고 100% 계승되고 역사와 함께 밭자국자리를 창조해온 후손들이 그 밭자국자리를 키우고 있다.

우리 수령님은 높이 물려줄 때 수령의 후손이라는 말의 진가는 끝았다.

하늘이 보면 경제적인 차이로는 우리에게는 수령님의 유훈을 자자손손 물려줄 때 수령의 후손이라는 말의 진가는 끝았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오늘의 이 경사를 보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령님의 한생을 펼쳐놓고 조국을 살아야 하는 책임을 면하지 않고 그나마 훌륭한 후손들이 그에게는 그나마 훌륭한 후손이다.

이런 후손들이 지혜롭고 철학자로써 혁명의 힘으로 밝혀져나가는 걸에서 세대의 의무를 다하기는 참으로 훌륭하지 않음을 고려한 후손의 후손이라는 말의 진가는 끝았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대체 한 밀뿌리로써 혁명의 힘으로 밝혀져나가는 걸에서 세대의 의무를 깨닫는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대체 한 밀뿌리로써 혁명의 힘으로 밝혀져나가는 걸에서 세대의 의무를 깨닫는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대체 한 밀뿌리로써 혁명의 힘으로 밝혀져나가는 걸에서 세대의 의무를 깨닫는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대체 한 밀뿌리로써 혁명의 힘으로 밝혀져나가는 걸에서 세대의 의무를 깨닫는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대체 한 밀뿌리로써 혁명의 힘으로 밝혀져나가는 걸에서 세대의 의무를 깨닫는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대체 한 밀뿌리로써 혁명의 힘으로 밝혀져나가는 걸에서 세대의 의무를 깨닫는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대체 한 밀뿌리로써 혁명의 힘으로 밝혀져나가는 걸에서 세대의 의무를 깨닫는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대체 한 밀뿌리로써 혁명의 힘으로 밝혀져나가는 걸에서 세대의 의무를 깨닫는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대체 한 밀뿌리로써 혁명의 힘으로 밝혀져나가는 걸에서 세대의 의무를 깨닫는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대체 한 밀뿌리로써 혁명의 힘으로 밝혀져나가는 걸에서 세대의 의무를 깨닫는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대체 한 밀뿌리로써 혁명의 힘으로 밝혀져나가는 걸에서 세대의 의무를 깨닫는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대체 한 밀뿌리로써 혁명의 힘으로 밝혀져나가는 걸에서 세대의 의무를 깨닫는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대체 한 밀뿌리로써 혁명의 힘으로 밝혀져나가는 걸에서 세대의 의무를 깨닫는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대체 한 밀뿌리로써 혁명의 힘으로 밝혀져나가는 걸에서 세대의 의무를 깨닫는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대체 한 밀뿌리로써 혁명의 힘으로 밝혀져나가는 걸에서 세대의 의무를 깨닫는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대체 한 밀뿌리로써 혁명의 힘으로 밝혀져나가는 걸에서 세대의 의무를 깨닫는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대체 한 밀뿌리로써 혁명의 힘으로 밝혀져나가는 걸에서 세대의 의무를 깨닫는다.

였다면 우리는 그처럼 잔악한 제국주의와 쟁위를 싸워 이길수도 없었을것이다.

그것으로 하여 우리는 모든것을, 완전하게 생취하였다.

대계도와 주체철, 비날로만이 아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들이라는 바로 그림으로 우리는 첨단을 돌파하고 침략자들이 무서워 별별 떠는 강력한 군력도 생취하였다.

위대한 장군님 따라 걸어온 혁명의 길에서 김일성동지 후손의 대이 어여운 혁명의 힘으로 우리는 첨단을 돌파하고 침략자들이 무서워 별별 떠는 강력한 군력도 생취하였다.

위대한 장군님 따라 걸어온 혁명의 길에서 김일성동지 후손의 대이 어여운 혁명의 힘으로 우리는 첨단을 돌파하고 침략자들이 무서워 별별 떠는 강력한 군력도 생취하였다.

위대한 장군님 따라 걸어온 혁명의 길에서 김일성동지 후손의 대이 어여운 혁명의 힘으로 우리는 첨단을 돌파하고 침략자들이 무서워 별별 떠는 강력한 군력도 생취하였다.

위대한 장군님 따라 걸어온 혁명의 길에서 김일성동지 후손의 대이 어여운 혁명의 힘으로 우리는 첨단을 돌파하고 침략자들이 무서워 별별 떠는 강력한 군력도 생취하였다.

위대한 장군님 따라 걸어온 혁명의 길에서 김일성동지 후손의 대이 어여운 혁명의 힘으로 우리는 첨단을 돌파하고 침략자들이 무서워 별별 떠는 강력한 군력도 생취하였다.

당대표자회를 통해 로령적성파로 맞이할 일정으로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신의 주닭공장

일군들과 동동자들

를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

습니다.»

지난해 공장을 찾으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는 당

의 종자혁명방침을 절저히

관철하며 먹이의 효성을

높여 축산물생산에서 결정

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파업과 방도를 밝혀 주시

였다.

경에하는 장군님의 현지

말씀을 절저히 관찰할 한

마음안고 공장의 일군들과

동동자, 기술자들은 난초부

터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

었다.

생산장성의 예비는 당

의 종자혁명방침을 계속 철

저히 관찰하는 데 있다.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이

런 목표를 세우고 한자리에

모여 앉았다. 이미 먹이를

직계 먹으면서도 빨리 자라

고 알낳이률이 높은 우량품

종의 종자를 확보해놓은 유

이상들이 고았다. 그리고

* 적은 먹이로 더 많은 축산

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혁

신투쟁을 힘있게 벌여 성과

를 거두고있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풀먹는집집승을 많이

기름대로 대한 당의 방침을

관찰하는는 못하는가는 하는

것은 우리 군人们的 달려

있습니다.»

풀먹는집집승을 대대적

으로 기름대로 대한 당의

방침이 제시되었을 때 농

장일군들은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염소기르기에 달라

붙였다.

한것은 농장이 산을 많이

끼고있어 염소를 대대적으

로 기를수 있는 유리한 조건

을 가지고있기때문이였다.

농장일군들은 축산작업

반뿐아니리 농산작업반들

에서도 염소우리를 갖고

많이 기르도록 하였다. 결

과 함께 사이에 농장의 염

소마리수는 월선 늘어나게

되었다.

농장일군들은 이에 만족

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그런 데 두해 후

부터는 이찌된 일인지 작업

즉시 협의회를 열고 분산

본사기자 문길수

를 찾아온 우량품

을 찾았는데 그들은

우리 우량품을 찾았는데

그들은 우량품을 찾았는데

최첨단돌파의 열풍이

제 11 차 전국 발명 및 새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
기술이자 국력이라는것을 깊
이 자각하고 국애의 열정을
바쳐 강성대국건설을 과학기
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여야
합니다.』

지금 3대 혁명전시관에서는
제 1 차 전국발명 및 새 기
술전람회가 성황리에 진행되
고 있다.

이번 전람회는 인민경제 모
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첨
단돌파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당창건 65돐과 당
대 표자회를 빛나는 력적성과
로 맞이하기 위한 과감한 공격
전이 벌어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진행되는 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모
으고 있다.

얼마전 이곳을 찾은 우리는
발명총국 국장 리철진동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이번 전람회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
들고 CNC기술의 명맥을 확고
히 둘러친 기세로 모든것의 폐
련을 쥐기 위한 과학자, 기술
자들과 근로자들의 발명창조사
업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를
가운데서 우수하게 평가된것을
이 출품되었다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이어 그는 이번 전람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전람회에서는 과학자, 기술자
들이 개발한 CNC요소들을 적
극 받아들이는데 목적을 두고
기술발전과 기술발표회를
통해 전시장을 마련하였다.
우리의 젊은 과학자들이 내
놓은 《현하 5 0 0》형 CNC장
치는 각종 기계설비들을 현대
화하기 위한것이었다. 발명에
서는 3축동시직선보간, 직경
마모보정기, 그라프트리거기능,
진단기능 등을 해결하였다. 해
설자의 말에 의하면 CNC장치
를 우리식으로 해결하여 이미
디자인 사항들의 청皓은 목소

리가 들려왔다.

『김일성화의 꽃피는 시기를
어떻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
는가?』

『김정일회의 신도보존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참관자들이 연방 질문을 들이
대는 그곳은 김일성화김정일화
연구센터의 전시대였다.

실장 김춘상동무는 김일성화
의 줄기마디사이에 응용을 주
입하여 발육되지 않은 눈을 높
여서 깨끗하고 벌써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으로 하여 호평을 받았다.

최첨단돌파의 기상은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주고받은 국가
과학원전시대에서도 느낄 수 있
으며 그 실수률도 종전의

방법에 비해 1. 5배이상 높
아졌다.

얼마전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당창건 65돐과 당
대 표자회를 빛나는 력적성과
로 맞이하기 위한 과감한 공격
전이 벌어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진행되는 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모
으고 있다.

얼마전 이곳을 찾은 우리는
발명총국 국장 리철진동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이번 전람회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
들고 CNC기술의 명맥을 확고
히 둘러친 기세로 모든것의 폐
련을 쥐기 위한 과학자, 기술
자들과 근로자들의 발명창조사
업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를
가운데서 우수하게 평가된것을
이 출품되었다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이어 그는 이번 전람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전람회에서는 과학자, 기술자
들이 개발한 CNC요소들을 적
극 받아들이는데 목적을 두고
기술발전과 기술발표회를
통해 전시장을 마련하였다.
우리의 젊은 과학자들이 내

놓은 《현하 5 0 0》형 CNC장
치는 각종 기계설비들을 현대
화하기 위한것이었다. 발명에
서는 3축동시직선보간, 직경
마모보정기, 그라프트리거기능,
진단기능 등을 해결하였다. 해
설자의 말에 의하면 CNC장치
를 우리식으로 해결하여 이미
디자인 사항들의 청皓은 목소

리를 들려왔다.

『김일성화의 꽃피는 시기를
어떻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
는가?』

『김정일회의 신도보존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참관자들이 연방 질문을 들이
대는 그곳은 김일성화김정일화
연구센터의 전시대였다.

실장 김춘상동무는 김일성화
의 줄기마디사이에 응용을 주
입하여 발육되지 않은 눈을 높
여서 깨끗하고 벌써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으로 하여 호평을 받았다.

최첨단돌파의 기상은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주고받은 국가
과학원전시대에서도 느낄 수 있
으며 그 실수률도 종전의

방법에 비해 1. 5배이상 높
아졌다.

얼마전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당창건 65돐과 당
대 표자회를 빛나는 력적성과
로 맞이하기 위한 과감한 공격
전이 벌어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진행되는 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모
으고 있다.

얼마전 이곳을 찾은 우리는
발명총국 국장 리철진동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이번 전람회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
들고 CNC기술의 명맥을 확고
히 둘러친 기세로 모든것의 폐
련을 쥐기 위한 과학자, 기술
자들과 근로자들의 발명창조사
업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를
가운데서 우수하게 평가된것을
이 출품되었다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이어 그는 이번 전람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전람회에서는 과학자, 기술자
들이 개발한 CNC요소들을 적
극 받아들이는데 목적을 두고
기술발전과 기술발표회를
통해 전시장을 마련하였다.
우리의 젊은 과학자들이 내

놓은 《현하 5 0 0》형 CNC장
치는 각종 기계설비들을 현대
화하기 위한것이었다. 발명에
서는 3축동시직선보간, 직경
마모보정기, 그라프트리거기능,
진단기능 등을 해결하였다. 해
설자의 말에 의하면 CNC장치
를 우리식으로 해결하여 이미
디자인 사항들의 청皓은 목소

리를 들려왔다.

『김일성화의 꽃피는 시기를
어떻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
는가?』

『김정일회의 신도보존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참관자들이 연방 질문을 들이
대는 그곳은 김일성화김정일화
연구센터의 전시대였다.

실장 김춘상동무는 김일성화
의 줄기마디사이에 응용을 주
입하여 발육되지 않은 눈을 높
여서 깨끗하고 벌써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으로 하여 호평을 받았다.

최첨단돌파의 기상은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주고받은 국가
과학원전시대에서도 느낄 수 있
으며 그 실수률도 종전의

방법에 비해 1. 5배이상 높
아졌다.

얼마전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당창건 65돐과 당
대 표자회를 빛나는 력적성과
로 맞이하기 위한 과감한 공격
전이 벌어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진행되는 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모
으고 있다.

얼마전 이곳을 찾은 우리는
발명총국 국장 리철진동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이번 전람회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
들고 CNC기술의 명맥을 확고
히 둘러친 기세로 모든것의 폐
련을 쥐기 위한 과학자, 기술
자들과 근로자들의 발명창조사
업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를
가운데서 우수하게 평가된것을
이 출품되었다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이어 그는 이번 전람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전람회에서는 과학자, 기술자
들이 개발한 CNC요소들을 적
극 받아들이는데 목적을 두고
기술발전과 기술발표회를
통해 전시장을 마련하였다.
우리의 젊은 과학자들이 내

놓은 《현하 5 0 0》형 CNC장
치는 각종 기계설비들을 현대
화하기 위한것이었다. 발명에
서는 3축동시직선보간, 직경
마모보정기, 그라프트리거기능,
진단기능 등을 해결하였다. 해
설자의 말에 의하면 CNC장치
를 우리식으로 해결하여 이미
디자인 사항들의 청皓은 목소

리를 들려왔다.

『김일성화의 꽃피는 시기를
어떻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
는가?』

『김정일회의 신도보존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참관자들이 연방 질문을 들이
대는 그곳은 김일성화김정일화
연구센터의 전시대였다.

실장 김춘상동무는 김일성화
의 줄기마디사이에 응용을 주
입하여 발육되지 않은 눈을 높
여서 깨끗하고 벌써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으로 하여 호평을 받았다.

최첨단돌파의 기상은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주고받은 국가
과학원전시대에서도 느낄 수 있
으며 그 실수률도 종전의

방법에 비해 1. 5배이상 높
아졌다.

얼마전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당창건 65돐과 당
대 표자회를 빛나는 력적성과
로 맞이하기 위한 과감한 공격
전이 벌어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진행되는 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모
으고 있다.

얼마전 이곳을 찾은 우리는
발명총국 국장 리철진동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이번 전람회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
들고 CNC기술의 명맥을 확고
히 둘러친 기세로 모든것의 폐
련을 쥐기 위한 과학자, 기술
자들과 근로자들의 발명창조사
업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를
가운데서 우수하게 평가된것을
이 출품되었다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이어 그는 이번 전람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전람회에서는 과학자, 기술자
들이 개발한 CNC요소들을 적
극 받아들이는데 목적을 두고
기술발전과 기술발표회를
통해 전시장을 마련하였다.
우리의 젊은 과학자들이 내

놓은 《현하 5 0 0》형 CNC장
치는 각종 기계설비들을 현대
화하기 위한것이었다. 발명에
서는 3축동시직선보간, 직경
마모보정기, 그라프트리거기능,
진단기능 등을 해결하였다. 해
설자의 말에 의하면 CNC장치
를 우리식으로 해결하여 이미
디자인 사항들의 청皓은 목소

리를 들려왔다.

『김일성화의 꽃피는 시기를
어떻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
는가?』

『김정일회의 신도보존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참관자들이 연방 질문을 들이
대는 그곳은 김일성화김정일화
연구센터의 전시대였다.

실장 김춘상동무는 김일성화
의 줄기마디사이에 응용을 주
입하여 발육되지 않은 눈을 높
여서 깨끗하고 벌써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으로 하여 호평을 받았다.

최첨단돌파의 기상은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주고받은 국가
과학원전시대에서도 느낄 수 있
으며 그 실수률도 종전의

방법에 비해 1. 5배이상 높
아졌다.

얼마전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당창건 65돐과 당
대 표자회를 빛나는 력적성과
로 맞이하기 위한 과감한 공격
전이 벌어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진행되는 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모
으고 있다.

얼마전 이곳을 찾은 우리는
발명총국 국장 리철진동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이번 전람회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
들고 CNC기술의 명맥을 확고
히 둘러친 기세로 모든것의 폐
련을 쥐기 위한 과학자, 기술
자들과 근로자들의 발명창조사
업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를
가운데서 우수하게 평가된것을
이 출품되었다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이어 그는 이번 전람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전람회에서는 과학자, 기술자
들이 개발한 CNC요소들을 적
극 받아들이는데 목적을 두고
기술발전과 기술발표회를
통해 전시장을 마련하였다.
우리의 젊은 과학자들이 내

놓은 《현하 5 0 0》형 CNC장
치는 각종 기계설비들을 현대
화하기 위한것이었다. 발명에
서는 3축동시직선보간, 직경
마모보정기, 그라프트리거기능,
진단기능 등을 해결하였다. 해
설자의 말에 의하면 CNC장치
를 우리식으로 해결하여 이미
디자인 사항들의 청皓은 목소

리를 들려왔다.

『김일성화의 꽃피는 시기를
어떻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
는가?』

『김정일회의 신도보존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참관자들이 연방 질문을 들이
대는 그곳은 김일성화김정일화
연구센터의 전시대였다.

실장 김춘상동무는 김일성화
의 줄기마디사이에 응용을 주
입하여 발육되지 않은 눈을 높
여서 깨끗하고 벌써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으로 하여 호평을 받았다.

최첨단돌파의 기상은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주고받은 국가
과학원전시대에서도 느낄 수 있
으며 그 실수률도 종전의

방법에 비해 1. 5배이상 높
아졌다.

얼마전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당창건 65돐과 당
대 표자회를 빛나는 력적성과
로 맞이하기 위한 과감한 공격
전이 벌어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진행되는 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모
으고 있다.

얼마전 이곳을 찾은 우리는
발명총국 국장 리철진동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이번 전람회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
들고 CNC기술의 명맥을 확고
히 둘러친 기세로 모든것의 폐
련을 쥐기 위한 과학자, 기술
자들과 근로자들의 발명창조사
업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를
가운데서 우수하게 평가된것을
이 출품되었다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이어 그는 이번 전람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전람회에서는 과학자, 기술자
들이 개발한 CNC요소들을 적
극 받아들이는데 목적을 두고
기술발전과 기술발표회를
통해 전시장을 마련하였다.
우리의 젊은 과학자들이 내

놓은 《현하 5 0 0》형 CNC장
치는 각종 기계설비들을 현대
화하기 위한것이었다. 발명에
서는 3축동시직선보간, 직경
마모보정기, 그라프트리거기능,
진단기능 등을 해결하였다. 해
설자의 말에 의하면 CNC장치
를 우리식으로 해결하여 이미
디자인 사항들의 청皓은 목소

리를 들려왔다.

『김일성화의 꽃피는 시기를
어떻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
는가?』

『김정일회의 신도보존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일합병》은 일본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국가테로이다

조선 중앙통신사 고발장

일본이 《한일합병》으로 조선의 국권을 강탈한지 100년이 되는 올해에 일본정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세기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군 사통처로 조선인민에게 해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일본이 그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한일합병》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수상과 여야당들이 8월 22일을 맞으며 발표한 담화들에서 사죄와 배상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지어 《일본의 림장을 달라질수 없다》고 강변하였다. 이것은 과거 청산을 바라는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에 대한 우롱이며 도전이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일본의 국권강탈 행위를 추호도 용납 못할 침략으로 끌어들여 준렬히 단죄한다.

1

《한일합병》은 일본이 관권과 군권을 충발동하여 주권국가를 대상으로 감행한 국가테로이다.

일본은 조선의 국권을 빼앗기 위해 그 뒷모습을 오랜 세월에 걸쳐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시켜왔다.

1868년 《명치유신》후 《일본의 번영과 천민》국가를 위해 무력으로 조선을 정복하여야 한다.》는 《정한론》을 내놓음으로써 《한일합병》의 정책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후 《율사 5조약》과 《정미 7조약》 등을 날조하여 리조봉건정부의 외교관과 내정권, 사법권을 틀어쥐고 조선을 사실상 저지로 만들었으며 《병합》을 위한 정의적 저지번을 닦았다.

1906년 2월에는 《한일합병》을 현지에서 추진시킬 목적으로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이와 함께 군사적자리를 구축하기 위한 대로 열을 올렸다.

합선경조 10개년계획을 세우고 1896년부터 막대한 자금을 여기에 쏟아부었으며 청일전쟁에서 받아낸 배상금을 포함한 17억상을 군사비로 향진하였다. 그리하여 1905년에 6000만금 이상의 최신군장을 갖춘 12척에 현재 적무장을 갖춘 20만명의 육군상비무력을 보유하였다.

조선반도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한일합병》실현에서 마지막장으로 되고있던 조선군대를 강제로 해산하였으며 경찰력을 빼앗고 철령경찰제도를 실시하였다.

일본당국은 서둘러 통치자를 통해 《현지수비대》를 조직하여 조선 사람들을 하여금 정치적변동의 전제와 같은 강압을 주지 않게 행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일본당국은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1909년 내각회의에서 《한국을 병합하여 이를 제국판도의 일부로 하는것은 반드시 우리의 실력을 확립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강도적 결정을 내렸다.

1910년 7월의 내각회의에서는 조선의 황실권을 박탈하고 국토를 완전히 강탈하는데 대해 밝힌 조선강점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일합병》을 강행하면서 조선인의 최고대표자였던 황제를 정치적무대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일본당국은 《한일합병》의 《법적》문건이라고 한 《조약》에 《한국 황제를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는에게 양여》하였으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계약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한 완전히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하였다. 박나름을 으로써 조선의 국가원수의 지위와 역할을 유명무실하게 하였다.

당국의 지휘조종하에 현지정책집행자들은 조선의 황제를 퇴위시켜 일본의

《평민》으로 만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책동하였다.

그들이 작성한 3건의 비밀문건 《조선총독보고 한국병합시발》 《병합시발》 《한국병합에 관한 서류·발전, 착권》, 《추밀위원회의 철기》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 외》(명치 4·3년 8월 22일) 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조선 《통감》 데라우찌는 1910년 7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한일합병》과정을 작성한 조선강점총합 보고서 《병합시발》을 1월 7일 내각에 제출하였으며 내각은 그것을 21일 왕에게 보고하였다.

보고서에는 《첫째, 현황제폐하는의 처권을 양여함과 동시에 태공전하의 〈존청〉을 받게 될것. ……앞서 말한 〈존청〉은 지금보다 약간 낫다. 할지라도… 대공전하로 일본황족의 혜우를 받는것도 … 낫다고는 말할수 없다. 이것을 가지고 수백년래의 혼엄이 견변한다고 받아들이는것은 심히 허무맹랑하고 근거가 없다.》 《병합이 실행된 후 왕위를 존속할만 한 이유가 없을뿐아니라 또 그 필요가 없으며 특히 이를 존속하게 한다면 오히려 장래에 회군을 남긴다. ……께 어느 나라도 주권을 갖지 않은자가 왕위를 대대로 계승하는 빠가 없다.》고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조선일보》 1910년 8월 13일부터는 《한일합병》을 대공의 직위를 주겠다.》고 지적되었다.

이것은 리조봉건정부의 최고대표자인 황제를 왕도 아닌 태공으로 한다고 명기한 보고서가 일본이 《한일합병》을 통해 《천황제중심》의 국가체제를 조선반도에 수립하려 하였음을 보여주는 공개적인 침략문서이다.

또한 반년의 오랜 혈사를 가지고 독립과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해온 우리 나라의 혈사를 외곡하여 조선의 국권을 강탈하려는 저들의 그릇된 기도를 합리화한 황당무계하게 하기 그지없는 짓이었다.

조선강점 일일보고서로서 조선 《통감부》와 일본내 각자에 오고간 기밀전문인 《한국병합에 관한 서류·발전, 착권》에는 《한일합병》을 위해 일본당국이 고안해낸 음모와 모략이 짐작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은 《병합》후 조선의 국호를 정하는 문제와 황실변경문제 내용으로 되어있다. 일본이 구조선의 최고대표자를 없애기 위해 얼마나 집요하게 책동했는가를 보여주는 산 자료이다.

《병합》후 그 무슨 《기념촬영》을 한 다음 하면서 조선 《통감》 데라우찌는 군복차림을 하면서도 조선황제에게는 평복차림을 강요하였다.

1910년 8월 30일 《도쿄니찌신보》는 일본왕의 사진아래에 고종파 순종황제의 사진을 편집함으로써 두 나라 왕실의 판례가 군신관계로 전락된 사실을 암시하였다.

구조선의 최고대표자 퇴위시켜 일본의 《평민》으로 만든 극히 오만하고 횡포한 처사는 그 무엇으로써 용납될수 없다.

국가원수에 대한 탄압은 곧 국가례로의 최고표현이다.

그것은 국가원수에 대한 탄압과 모욕이 그 나라 인민들에게 나리일은 설움을 안겨주며 당국의 운명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오후 하였으면 학부대신 리용직을 비롯한 우국지사들이 《임금이 유품을 보게 되면 신은 죽음뿐》이라고 꾸성을 터뜨렸겠는가.

《한일합병》조작의 주범은 일본왕과 그의 명령, 비준에 움직인 정부와 군부이다.

왕과 내각수상이 직접 《한일합병》을 위한 국가례로 행위를 지원조종하였으며 군부가 폭력과 강권으로 그것을 뒤바침하였다.

조선 《통감부》와 일본내 각자에 1910년 8월 7일부터 10월 14

일까지 오고간 전문은 공개된것만 해도 290여건이다.

그중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8월 18일 오후 3시 30분발

데라우찌통감 앞

더우기 서류가 배일방 도착하면 시기

를 그르칠 가망도 있으므로 말을 전해

듣는대로 유효한 부분만 전문을 타전

할것.

《8월 22일

고다마비서관 앞

추밀원에 자순한 법령안은 모두 내각

제출안대로 가결된다. 알고있을것. 오늘

부터 공포에 이르는 기간은 비밀을 유지

하는데 가장 어려울 때임. 이곳에서도

충분하게 주의할것임. 귀부에서도 선처

비방.

당시 의무차관이었던자는 《…나는

조선을 원전히 없애고 제국령토의 한부

분으로 되어야 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히

는 동시에 그 어조가 너무 파격하지 않는

단어를 고르려고 여러가지로 생각하

다가 좋은 단어를 발견할수가 없어서 결

국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

를 고르는 편이 드책이라고 인정하여

어려울것임. 이란 단어를 쓰기로 하였다.》고 벼파하였다.

남조선의 《세계일보》 1910년 8월 13일부터는 《(일) 한국강점》 전보 문서 발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총독보고 한국병합시발》은 《한일합병》 추진을 데라우찌단독으로 처리한것이 아니라 일본내각은 물론 천황이 직접 지휘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결정적 문서이다. 문서는 데라우찌가 한국에 부임되면서 이는 일본본국의 주장과는 달리 체육부터 치밀한 계획아래 일제가 조선을 강탈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데라우찌는 《한일합병》과정에 일본천황과 내각의 각본을 그대로 시행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반년의 오랜 혈사를 가지고 독립과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해온 우리 나라의 혈사를 외곡하여 조선의 국권을 강탈하려는 저들의 그릇된 기도를 합리화한 황당무계하게 하기 그지없는 짓이었다.

조선강점 일일보고서로서 조선 《통감부》와 일본내 각자에 오고간 기밀전문인 《한국병합에 관한 서류·발전, 착권》에 《한일합병》을 위해 일본당국이 고안해낸 음모와 모략이 짐작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은 《병합》후 조선의 국호를 정하는 문제와 황실변경문제 내용으로 되어있다. 일본이 구조선의 최고대표자를 없애기 위해 얼마나 집요하게 책동했는가를 보여주는 산 자료이다.

《한일합병》은 일본당국자들이 혈사적으로 《소원》해온 침략아방의 직접적 산물이며 결파이다.

《한일합병》후 일본반동들은 《기념

그림판》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다.

영서에 《신공화기》이 되어 2000년

간 기다려왔던 《합방》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한일합방의 노래》를 실었다.

또한 《합방》으로 평통은 오스트리아-마르크. 인구는 도이체란드에 상승되었을

을 보여주는 《기념지도》를 실었다.

《지도》에 우리 나라와 일본을 같은 색으로 표시했으며 일장기와 꽂혀있는 송

례문주변사진 등을 편집하였다.

1934년에 일본의 국우족력단체인 《흑룡회》가 주동이 되어 《일한합방기념일》을 건립하였으며 그 후면에 《우사례의 혈안인 한국강점을 해결했다는 사실을 《한일합병》으로 평통은 오스트리아-마르크. 인구는 도이체란드에 상승되었을 것이다. 《기념지도》를 실었다.

1934년 8월 30일 《도쿄니찌신보》는 일본왕의 《기념촬영》을 한 다음 하면서 조선 《통감》 데라우찌는 군복차림을 하면서도 조선황제에게는 평복차림을 강요하였다.

1910년 8월 30일 《도쿄니찌신보》는 일본왕의 《기념촬영》을 한 다음 하면서 조선 《통감》 데라우찌는 군복차림을 하면서도 조선황제에게는 평복차림을 강요하였다.

1910년 8월 30일 《도쿄니찌신보》는 일본왕의 《기념촬영》을 한 다음 하면서 조선 《통감》 데라우찌는 군복차림을 하면서도 조선황제에게는 평복차림을 강요하였다.

1910년 8월 30일 《도쿄니찌신보》는 일본왕의 《기념촬영》을 한 다음 하면서 조선 《통감》 데라우찌는 군복차림을 하면서도 조선황제에게는 평복차림을 강요하였다.

1910년 8월 30일 《도쿄니찌신보》는 일본왕의 《기념촬영》을 한 다음 하면서 조선 《통감》 데라우찌는 군복차림을 하면서도 조선황제에게는 평복차림을 강요하였다.

1910년 8월 30일 《도쿄니찌신보》는 일본왕의 《기념촬영》을 한 다음 하면서 조선 《통감》 데라우찌는 군복차림을 하면서도 조선황제에게는 평복차림을 강요하였다.

1910년 8월 30일 《도쿄니찌신보》는 일본왕의 《기념촬영》을 한 다음 하면서 조선 《통감》 데라우찌는 군복차림을 하면서도 조선황제에게는 평복차림을 강요하였다.

1910년 8월 30일 《도쿄니찌신보》는 일본왕의 《기념촬영》을 한 다음 하면서 조선 《통감》 데라우찌는 군복차림을 하면서도 조선황제에게는 평복차림을 강요하였다.

1910년 8월 30일 《도쿄니찌신보》는 일본왕의 《기념촬영》을 한 다음 하면서 조선 《통감》 데라우찌는 군복차림을 하면서도 조선황제에게는 평복차림을 강요하였다.

1910년 8월 30일 《도쿄니찌신보》는 일본왕의 《기념촬영》을 한 다음 하면서 조선 《통감》 데라우찌는 군복차림을 하면서도 조선황제에게는 평복차림을 강요하였다.

1910년 8월 30일 《도쿄니찌신보》는 일본왕의 《기념촬영》을 한 다음 하면서 조선 《통감》 데라우찌는 군복차림을 하면서도 조선황제에게는 평복차림을 강요하였다.

1910년 8월 30일 《도쿄니찌신보》는 일본왕의 《기념촬영》을 한 다음 하면서 조선 《통감》 데라우찌는 군복차림을 하면서도 조선황제에게는 평복차림을 강요하였다.

1910년 8월 30일 《도쿄니찌신보》는 일본왕의 《기념촬영》을 한 다음 하면서 조선 《통감》 데라우찌는 군복차림을 하면서도 조선황제에게는 평복차림을 강요하였다.

1910년 8월 30일 《도쿄니찌신보》는 일본왕의 《기념촬영》을 한 다음 하면서 조선 《통감》 데라우찌는 군복차림을 하면서도 조선황제에게는 평복차림을 강요하였다.

1910년 8월 30일 《도쿄니찌신보》는 일본왕의 《기념촬영》을 한 다음 하면서 조선 《통감》 데라우찌는 군복차림을 하면서도 조선황제에게는 평복차림을 강요하였다.

1910년 8월 30일 《도쿄니찌신보》는 일본왕의 《기념촬영》을 한 다음 하면서 조선 《통감》 데라우찌는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점경에로 돌아가는 장본인

지금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의 이목이 전쟁의 검은 구름이 밀려들고 있는 조선반도에 쏟리고 있다. 특대형 모략사건을 날조한 미국은 그것을 구실로 조선반도에서 합동군사연습을 품임없이 벌리면서 정세를 국도로 긴장시키고 있다. 이미 7월 중순 조선동해상에서 편협해 상훈련을 강행한 미제는 남조선의 해상과 공중, 지상에서 북침전쟁연습을 광범위하게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 이것은 전례없는 군사적 폭기이다.

미국과 남조선은 회전평화를 맺은 지난 16일부터 남조선전역에서 《울지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벌리고 있다. 전쟁열기들 흘린 호전평들은 헤황공포방 《조지 워싱턴호》를 비롯한 미제 7대미의 무력을 남조선해역에 대대적으로 들이밀어 종전의 합동군사연습들을 훨씬 통가하는 대규모적인 해상연합작전 등을 벌리려 하고 있다.

미국이 피뢰들이 아합하여 조선반도주변에서 벌리는 대규모 합동훈련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인 동시에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군사적 망동이다.

미국은 그 무슨 《도발'에 대처한 방어훈련》이니 뛰어 하면서 군사연습의 목적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라고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호전평들은 합동군사연습을 학파하기 위한 별의별 계획을 다내 돌려도 북침전쟁연습의 도발적 성격과 위험성을 가리울 수 없다.

미호전평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이곳에서 정세를 격화시키는 불장난을 자제하여야 한다. 누구에게나 명백한 한비와 같이 조선반도에서 군사

적총들을 방지하고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킬 필요가 없다.

오늘 조선반도는 그 어떤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전면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한 지역으로 되고 있다. 미제는 지난 수십년 동안 남조선을 가로타

고 암아온 군사적 폭력을 다그쳐

왔다. 남조선에는 수많은 미제침략군

과 방대한 전쟁수단들이 집중 배치되

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곳에는 1 000여개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아시아 평양지역은 미

군과 그 추종세력 무력의 거대한 집결

처, 작전지역으로 전변되고 있다.

미제는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새

로운 전쟁계획을 짜놓고 기회만을

놓고 있다. 미제호전평들은 남조선을

군사적 발판으로 하여 전조선을 접어삼

기고 나아가서 아시아 대륙에 대한 군

사지적 배점을 확립할 목적 밖에 전제없

는 군사적 폭기를 부리고 있다. 이런 속

에서 미제가 남조선피뢰들과 함께 우

리를 거닐한 대규모 합동훈련을 벌리

는 것은 제 2조선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리는 무모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미제가 우리와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전쟁을 도발하

는 험한 행위를 했지만, 그 험한 행위는 전쟁을

방지하는 조선반도의 전쟁을

<p